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정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은경
국민대학교 교양 대학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Activities and Recognition of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Eun Kyung Kim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정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2020년 노인실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활동으로는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 및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항목과 더불어 사회적 인정 요소로는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력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이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 삶의 만족을 높였으며, 또한 이웃과의 만족스러운 교류를 할수록 삶의 만족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고용 등 다양한 사회활동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 정책 입안 과정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견해와 권익을 옹호하도록 정치력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2020 Survey on the Status of the Elderly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ocial activities and recognition of the elderly on their life satisfaction. Social activities, volunteering, clubs, religion, and interaction with neighbor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long with social recognition factors such as social respect and political influe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s elderly people's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clubs, and religious activities increased and gave them more satisfying interactions with their neighbors, their overall life satisfaction increased.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social respect and political influence,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venues should be provided for various social activities such as volunteering, clubs, and religious activities, as well as employment. Second, we must ensure that the elderly can smoothly establish the necessary social relationships in the community so that they are not isolated. Third, awareness of the elderly must be improved so that they can be recognized and respected in society. Fourth,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elderly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y can defend their positions and rights during the formulation of the policies that impact them.

Keywords : Social Activities, Social Recognition, Life Satisfaction, Korean Elderly, Hierarchical Regression

*Corresponding Author : Eun Kyung Kim(Kookmin Univ.)

email: sena8054@kookmin.ac.kr

Received October 4, 2023

Revised November 7, 2023

Accepted January 5, 2024

Published January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로 사상 처음 900만 명을 넘었고 베이비붐세대가 2020년부터 노인 인가로 본격적으로 진입 하면서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6%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1]. 또한 2022년 한국 여성 1명의 합계 출산도 단지 0.78명에 불과하여 고령화의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2] 사회복지뿐 아니라 철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신학 등 모든 분야에서 노인 문제에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3]. 현대 사회의 노인은 가족 부양의식이 약해지고 위상도 많이 쇠퇴하여[4], '경로'의 대상 이라기보다 '양로'와 '구휼'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5], 특히, 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 정신적 쇠퇴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노인학대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6].

그러나 많은 노인은 은퇴 후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활동적인 노년을 추구하므로, 고령화 현상을 무조건 사회문제로만 여기는 관점은 변화가 필요하다[7]. 우리나라 노인현장에서는 '노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취미나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8]. 또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07년부터 노인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노화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 도시환경 증진을 위한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발간하여 사회·경제·환경적으로 노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인 노년(active aging)을 지향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강조하였다[9]. 이는 노인의 사회활동이 은퇴 후 취미나 조직체에 속한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을 증진하고[8], 상호작용을 통한 주관적 만족감을 높여 노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10,11] 노인의 인지 저하를 예방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12]. 무엇보다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는 노인의 여가를 확대했고 사회활동을 통한 여가 활용은 노인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rikson의 이론에서 생산성은 미래 세대에 혜택과 유산을 남기려는 데서 삶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13]. 따라서 고령자가 젊은 세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존중을 받는 것은 삶에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면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4,14]. 최근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과 노인 삶의 만족에 관한 Kim[14]의 연구와 Lee 와 Choi의 연구[15]에 의하면 노인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정이 고령 친화적 요소로서 노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고령자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4]. 또한, 노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입안에 있어 노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요구되고[16], 출생률 감소와 가파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노인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17], 현재 노인들은 민주적인 시민의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미흡한 실정이다[18].

노인 삶의 만족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여부,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을 높여 준다는 연구 결과들[20-22] 과 더불어 산업화 이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영향력이 쇠퇴한 현시점에서 노인의 사회적 활동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인정 요인인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력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겼다. 이에 활동성과 인지력이 저하된 노인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활동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이 현대 사회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23], 노인 삶의 만족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다양한 경험들과 지역사회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되므로[19], 노인의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노인이 사회에서 인식하는 노인에 대한 존중과 정치적인 영향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인정 요소인 사회적 존중 및 정치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노인 삶의 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인정 요소인 사회 존중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노인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노인의 사회활동 요인들과 사회적 인정 요인들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연구 시사점 및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2. 연구설계 및 방법

2.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인정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 노인실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며[24] 조사자료는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에서 신청한 후 허가를 받고 이용하였다[25]. 자료에는 각 시도의 거주지역, 연령, 성별, 가구 형태, 취업 여부, 교육, 가구 소득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조사 참여자 10,097명 중 만 65세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를 SPSS 자료에서 제외해 법정 노인 나이 만 65세 이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총 9,677명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2.2 측정 도구 및 연구모형

2.2.1 종속 변수: 노인 삶의 만족

2020년 노인실태 조사자료에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생활과 환경요소에 대한 만족도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노인 삶의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특히, 조사자료에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6개 항목인 1) 건강 상태 2) 경제 상태 3)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4) 사회·여가·문화 활동 5)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만족도 항목을 연구를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도록 재코딩하고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7$ 이다.

2.2.2 독립 변수: 사회적 활동과 인정 요소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동 및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항목과 사회적 인정에 해당하는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항목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사회적 활동은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동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으면 (0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을 때 (1점) 으로 더미 변수화하였고, 이웃과의 교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역 채점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인정에 해당하는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에 대한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게 평가되도록 변환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더미변수로 인한 노인의 사회적 활동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235$ 이었으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20$ 로 나타났다.

2.2.3 통제변수

노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학력, 건강, 경제활동 여부, 소득[14,26,27], 성별을 통제변수로 채택하였다. 연령은 만으로 하였고 교육은 고등학교 미만은 0, 고등학교 이상은 1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노인 가구의 소득은 연간 총소득응답자 간의 편차를 고려하여 로그함수 처리하였고 건강은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의 수를 투입하였으며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0,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1로 더미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2.4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은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동, 이웃과의 교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인정은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으로 하였다. 통제적 변수는 인구 통계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2.5 위계적 회귀 분석 모형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통제변수, 사회적 활동 변수와 사회적 인정이 노인 삶의 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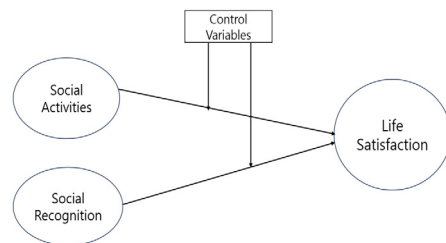


Fig. 1.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odel

2.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인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정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6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노인실태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위해 기술 통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외에 원자료 변수를 변환하여 역 채점, 더미변수 및 로그합수 등으로 재구성하여서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자료에 대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정의 요인들과 노인 삶의 만족 간의 요인별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상세한 설명 값을 알아보기 위해 Model 1은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였고, Model 2는 사회적 활동과 인정요인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영향 관계를 알아보았다.

3. 연구 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 실태조사 원자료의 노인가구 연령, 성별, 신체적 건강,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경제활동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응답자 10,097명 중 만 65세 이상 응답자는 총 9,667명이었으며 분석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74세(SD=6.443)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9%이고 남성은 41%에 해당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앓고 있는 만성 질환 수는 1.83(SD=1.471)으로 약 2개 정도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는 단지 36%에 불과하였고 응답자의 39%만이 현재

고용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총소득은 연평균 약 1,504만 원 (SD=2300.811)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5만 원의 월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9,677)

Spec.	N(%), M(S.D)	
Age	74 (SD=6.443)	
Gender	Female	5,692 (59%)
	Male	3,985 (41%)
Physical Health	Number of Chronic diseases	1.83 (SD=1.471)
Yearly Income	Gross Annual Household Income	1,5040,000 (SD=2300.811)
Education Level	Junior High School or Lower	6,211 (64%)
	High School or Higher	3,466 (36%)
Employment Status	Employed	3,729 (39%)
	Unemployed	5,948 (61%)

3.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노인 삶의 만족에 대한 각각 독립변수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01).

즉, 자원봉사 활동 여부에 대한 노인 삶의 만족과의 상관관계(.083), 동호회 활동 여부와 노인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137), 종교활동 참여 여부와 노인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072), 이웃 간의 교류와 노인 삶의 만족과의 상관관계(.371), 사회적 존중과 노인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312), 정치적 영향력과 노인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380)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각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1. Volunteer Activities	1						
2. Club Activities	.214**	1					
3. Religious Participation	.039**	.013	1				
4. Connecting with Neighbors	.041**	.064**	.036**	1			
5. Social Respect	.012	.018	.046**	.139**	1		
6. Political Influence	.020*	.040**	.025	.141**	.453**	1	
7. Life Satisfaction	.083**	.137**	.072**	.371**	.312**	.380**	1

** p<.01 * p<.05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Control Variables						
Age	-.017	-12.652***	-.107	-13.440***	-.104	-13.317***
Gender	-1.591	-14.980***	-1.622	-16.115***	-1.588	-15.932***
Education Level	1.804	16.396***	1.509	14.359***	1.541	15.115***
Physical Health	-.626	-18.823***	-.604	-19.254***	-.535	-17.427***
Employment Status	.517	4.654***	.415	3.954***	.377	3.705***
Yearly Income	.032	.558	.055	1.011	.057	1.079
Social Activities						
Volunteer Activities			.995	3.760***	.920	3.581***
Club Activities			1.066	4.499***	.960	4.172***
Religious Participation			.355	2.426**	.269	1.896**
Connecting with Neighbors			1.564	25.156***	1.394	22.830***
Social Recognition						
Social Respect					.495	8.964***
Political Influence					.543	11.099***
R ² /Adjusted R ²	.254***/ .253***		.338***/ .337***		.377***/ .375***	
F	315.954***		176.395***		174.122***	

*** p<.001, ** p<.01, * p<.05, 2) Tolerance > 0.1 VIF <10

3.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과 노인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Model 1의 설명력은 25.4%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나이가 적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만성질환 수가 적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요인도 여성일수록 삶의 만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연 총수입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노인 삶의 만족의 영향 관계를 보여주는 Model 2의 설명력은 33.8%로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수록($\beta = .995$, $p < .001$), 동호회 활동을 할수록($\beta = .184$, $p < .001$), 종교활동을 할수록($\beta = 1.066$, $p < .001$), 종교적 활동에 참여할수록($\beta = .355$, $p < .01$), 이웃과의 교류에 만족할수록($\beta = 1.564$, $p < .001$) 노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Model 3의 설명력은 37.7%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회적 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beta = .494$, $p < .001$), 정치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beta = .543$, $p < .001$) 노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서의 $F=315.954$ 이고 Model 2에서의

176.395로서 F값의 변화량은 약 139.559로 이러한 변화는 유의미한 변화이며($p < .001$), Model 3은 $F=174.122$ 으로 F값의 변화량은 2.273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p < .001$). 따라서, 본 연구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적 활동인 자원봉사 활동 여부, 동호회 활동 여부, 종교활동 여부, 이웃과의 교류와 노인의 인정요인인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은 노인 삶의 정적(+) 영향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3에서 제시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실태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활동인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동 및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인정 요소인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인식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활동은 자신의 행동 범위를 가족 이외의 사회구성원들로 확산하여 관계를 넓히면서 다양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10], 본 연구 결과 자

원봉사 활동은 노인 삶의 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는 최근 Park 과 Youn[28]의 연구에서 노인 자원봉사 체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노인의 봉사활동이 인간관계 형성, 심신의 건강을 증진해 생활의 만족감을 높여 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노인이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동호회 역시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동호회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노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게이트 볼과 같은 스포츠 동호회를 통해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29,30]. 본 연구 결과는 Lee 의 게이트볼 동호회 활동 참가와 여가 만족 및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동호회에 참가한 노인들은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휴식적, 환경적으로 만족감이 더 높다[30]는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더불어 노인의 종교활동도 노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최근 노인의 종교 참여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Kim의 연구[31]에서 노인의 종교 참여도가 행복감을 높인다는 결과와 종교활동은 빈곤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모두에게 우울을 낮춘다는 결과[32]와 부합하여, 노인에게 있어 종교활동은 노인의 삶에 만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본 연구 결과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한 관계 만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와 고립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Aging in Place:AIP) 요소이기도 하다[27].

또한, 본 연구 결과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노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필요한 요소이고 나아가 노인이 정치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hn 과 Yu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긍정적 인식이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인다는 결과와[19] 더불어 Lee 와 Yim의 연구[33]에서 노인의 인권 의식 및 정치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올라간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에 본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조 2항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3조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 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4]. 따라서 이러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을 위한 발달 과제 차원의 사회적 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동 및 고용 등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활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를 통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재능기부 및 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 세대 통합형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35].

둘째,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은 친숙한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웃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맺으면서 노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36], 나아가 세대 갈등적 요소를 완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세대 통합적인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35]. 이에 이웃 간 단절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단체, 공공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관계 개선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37] 이를 위해 지역사회 안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감을 해결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8]. 또한 노인 교실,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이웃 간의 관계 맺기를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39].

셋째, 노인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이 높아지므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노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노인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 노인은 과거 기준에 의한 존중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인이 다양한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세대 통합적 사회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홍보, 교육 및 노인 인식개선 활동에 힘쓰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19].

넷째, Kim의 연구[18]에서 노인이 사회응집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치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고령화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노인들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정치 집단화되는 '고령 시민 파워 (senior citizen power)' 또는 '회색 파워 (gray

power)’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17]. 그러므로 노인들이 민주적인 시민의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며[18] 이에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법률 입안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권익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하지만[16]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화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와 상생을 위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14,40].

5.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방안

본 연구는 2020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인정 요인과 노인 삶의 만족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것은 의미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2차 자료를 활용한 기존 문항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변수를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지 못한 점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사회적 활동과 인정요인에 대한 변수를 더 추가하여 세분되고 구체적인 질문지를 작성한 후 직접 조사 연구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한다면 연구의 참신성과 활용도 및 학술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83> (accessed Sep. 18, 2023)
- [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714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3] K. E. Choi, "Honor thy parents - Supporting the elderly as described in the Old Testament", *Europe Society Culture*, Vol.24, pp.55-74, 2020. DOI: <https://doi.org/10.23017/eurosc.2020..24.55>
- [4] K. W. Lee, "A Trial Study on Respect", *Korean Elementary Moral Education Society*, Vol.35, pp.311-332, 2011. DOI: <https://doi.org/10.17282/ethics.2011..35.311>
- [5] H. Y. An, "Traditional Perception of the Old and the Respect for the Old", *Korea University Folk Culture Research Institute*, Vol.81, pp.517-553, 2018. DOI: <https://doi.org/10.17948/kcs.2018..81.517>
- [6] J. H. Jung, "A plan to secure a social welfare safety net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problem) - Focusing on the revision (Welfare of the Aged Act) on March 13, 2018-",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Vol. 11, No.1, pp.309-334, 2023. DOI: <https://doi.org/10.30833/LTPR.2023.02.11.1>
- [7] M. K. Park,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as a human resource in preparation for a super-aged society and Christian education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ology and Practice*, Vol.82, pp.667-693, 2022. DOI: <https://doi.org/10.14387/jksph.2022.82.667>
- [8] http://knasw.co.kr/bbs/content.php?co_id=charter (accessed Aug. 28, 2023)
- [9]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he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Looking back over the last decade, looking forward to the next*. 2018. Available From: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278979>
- [10] Y. H. Cho,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With Social Activity In Elderly Women",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Vol.12, No.1, pp.1-28, 2009. DOI: <https://doi.org/10.22955/ace.12.1.200902.1>
- [11] M. L. Medley,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Vol.31, No.4, pp.448-455, 1976. DOI: <https://doi.org/10.1093/geroni/31.4.448>
- [12] D. J. Park, "Guide de pratiques en matière de médiation culturelle destinée aux personnes âgées à l'autonomie diminuée", *Europe Society Culture*, Vol.16, pp.261-292, 2016. DOI: <https://doi.org/10.23017/eurosc.2016..16.261>
- [13] R.K. Scott, D.K. Nadorff, M.B.Barnett, L. Yancura, "Respect Your Elders: Generativity and Life Satisfaction in Caregiving Grand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 Development*, Vol.96, No.3, pp.335-349, 2023. DOI: <https://doi.org/10.1177/00914150221092128>
- [14] E. K Kim, "The Effects of Aging-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for Aging in Place (AIP)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3, No.4, pp.527-539, 2023. DOI: <https://doi.org/10.5392/JKCA.2023.23.04.527>
- [15] H. M. Lee, M. S. Choi, "The Age-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Factors Contributing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42, No.2, pp.262-279, 2022.
- [16] M. S. Lee,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n Elderly People's Political Orientation on the Movements for Right. Ph.D dissertation, Hansung University, pp.76-77, 2013.
- [17] H. J. Kim, "Social and political impacts of aging - Cases of Korea and Japan", *Korea Social Research Center*, Vol.5, No.1, pp.81-97.
- [18] S. W. Kim,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elderly's political participation", *Institute for Local Government*, Vol.34, No.2, pp.47-66, 2018.
- [19] T. S. Ahn, Y. J. Yu, "The Impact of Perceptions toward

- the Elderly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Local Social Environments",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11, pp.428-437, 202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2.22.11.428>
- [20] Y. B. Kim, S. H. Lee, "Social Particip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Elderly in Seoul and Chuncheon Area",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28, No.1, pp.1-18, 2008.
UCI: [G704-000573.2008.28.1.001](https://nrs.ksre.or.kr/doi/G704-000573.2008.28.1.001)
- [21] S. H. Kim, J. W. Jung, J. Y. Song,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f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ticipation in formal and Informal Social Activities",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3, No.3, pp. 167-191, 2018.
DOI: <https://doi.org/10.21194/kjgsw.73.3.201809.167>
- [22] M. L. Maeng, *Effect of Elderly Health Status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Calvin University, pp.111-112, 2023.
- [23] H. K. Gu, "A Study on Proposal to Develop Senior related Policies : Convergence Approach of both Age Norm and Hoping Activitie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4, No.4, pp.101-110,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4.101>
- [24] S. J. Kim, N. H. Hwang, J. M. Yim, B. H. Ju, E.H. Namgung, 2020 Elderly Survey, Final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1-911.
- [25]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 (accessed Oct. 29, 2022)
- [26] H. J. Le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mong the oldest-old : The mediating effect of gerotranscendence",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5, No.3, pp.9-29, 2020.
DOI: <https://doi.org/10.21194/kjgsw.75.3.202009.9>
- [27] E. K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ge-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Vol.8, No.2, pp.21-26, 2023.
DOI: <http://dx.doi.org/10.31152/JB.2023.04.8.2.21>
- [28] J. H. Park, S. S. Youn,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volunteer experience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11, pp.438-456, 202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2.22.11.438>
- [29] W. H. Lee, S. W. Lim, "The Social Meaning of Gateball Club Participa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53, No.1, pp.559-572, 2013.
DOI: <http://dx.doi.org/10.51979/KSSLS.2013.08.53.559>
- [30] E. S. Lee, "the Participation in Gateball Club Activity of the Old,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Sport Research*, Vol.14, No.5, pp.153-162, 2003.
UCI: [1410-ECN-0102-2009-690-001767999](https://nrs.ksre.or.kr/doi/1410-ECN-0102-2009-690-001767999)
- [31] J. H. Kim, "The Impact of Elderly Religious Participation on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23, No.8, pp.599-609, 202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3.23.08.599>
- [32] Y. H. Kim, "The Effect of Poverty on Depression of Older Adults: Moderating Effect of Religious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9, pp.169-176, 202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2.23.9.169>
- [33] Y. H. Lee, W. S. Yi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Association of 21 Century Social Welfare*, Vol.17, No.1, pp.97-122, 2020.
- [3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accessed Sep. 10, 2023)
- [35] H. S. Yoon, H. S. Jeon, "Analysis of the Degree of Community-Aged Affinity for the Creation of a Generation-Integrated Super-Aged Community: Focused on Yeongdeungpo-gu and Yongin-si", *Hallym journal of Aging Studies*, Vol.6, No.1, pp.25-47, 2018.
- [36] E. K. Kim, "Effects of an Age-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on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Focusing on 17 Cities and Provinces in 2020 Elderly Surve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8, pp.227-233, 202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3.24.8.227>
- [37] J. Y.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Self-Rated Health or Depression: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Sociodemographic Variabl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8, No.2, pp.290-315, 2018.
UCI: [1410-ECN-0102-2018-300-003911326](https://nrs.ksre.or.kr/doi/1410-ECN-0102-2018-300-003911326)
- [38] S. H. Cho, Y. S. Yoo,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in Low-income Aged People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1, No.4, pp.35-59, 2016.
- [39] C. M. Yun, J. H. Park,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Modulate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5, No.1, pp.35-64, 2020.
DOI: <http://dx.doi.org/10.21194/kjgsw.75.1.202003.35>
- [40]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orld Health Organization, pp.1-145, 2007.

김 은 경(Eun Kyung Kim)

[정회원]



- 1990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문학사)
- 1998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
업학과 (문학석사)
- 2005년 5월 :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Christian Education and
Ministry-Based Evangelism
and Discipleship (M.A.)
- 2013년 12월 : University of North Texas, Applied
Gerontology (Ph.D.)
- 2021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노인상담, 노인고용, 응용노인학